Market Talks
교육 센터

외환 · 초급 · 15강 중 7강

무엇이 통화를 움직이는가

금리와 인플레이션부터 투자 심리와 정치적 충격까지 모든 환율 뒤에 있는 힘, 그리고 뉴스 자체보다 서프라이즈가 더 중요한 이유

읽는 시간 12분 퀴즈 8문항, 정답 포함

외환 · 초급 · 15강 중 7강

무엇이 통화를 움직이는가

한 문장 요약

환율은 한 통화에 대한 수요가 다른 통화에 비해 바뀔 때 움직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큰 동인은 금리,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무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표와 사건이 시장의 예상과 비교해 어떻게 나왔는지,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심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치적 충격에 가격이 반응합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통화의 가격은 시장의 다른 모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달러로 유로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으면 달러로 잰 유로의 가격, 즉 EUR/USD가 오릅니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내립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통화보다 어떤 통화를 갖고 싶게 만드는가?** 답은 여러 이유가 섞여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기 돈에서 가장 좋은 수익을 원합니다. 기업은 물건값을 치르려고 통화가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는 안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려고 합니다.

이 강에서는 이런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어느 것도 혼자 작용하지 않고 그 영향력은 시간에 따라 바뀌지만, 이 힘들을 함께 보면 통화 차트에서 보이는 움직임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통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매도자가 많으면 내립니다.

여섯 가지 주요 동인

대부분의 통화 움직임은 여섯 갈래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금리**: 주요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동인입니다.
-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와 중앙은행의 다음 행보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성장과 고용**: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 줍니다.
- **무역과 원자재**: 물건값을 치르려고 한 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입니다.
- **투자 심리**: 투자자가 자신감을 느끼는지, 두려워하는지입니다.
- **정치와 돌발 사건**: 선거부터 갑작스러운 위기까지입니다.

다음 절들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 동인들이 얼마나 자주 첫 번째, 즉 금리와 금리를 정하는 중앙은행으로 이어지는지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다음 강인 8강의 주제가 중앙은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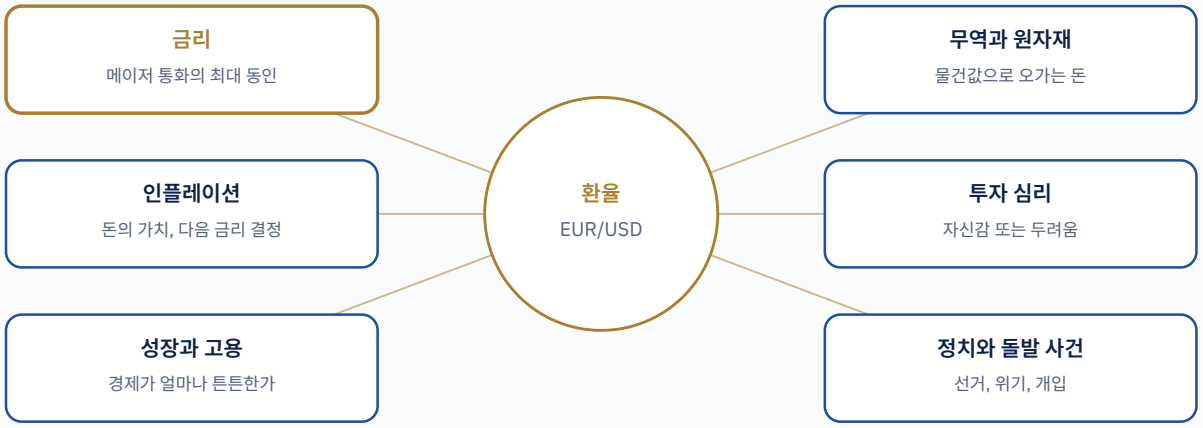


그림 2. 여섯 갈래의 원인이 대부분의 통화 움직임을 설명합니다. 주요 통화쌍에서는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 돈은 가장 좋은 수익을 찾아갑니다

연기금, 보험사, 은행 같은 대형 투자자는 좋으면서도 안전한 수익을 찾아 막대한 돈을 전 세계로 옮깁니다. 한 나라의 금리가 5%이고 다른 나라가 1%라면, 첫 번째 나라에 둔 돈이 더 많이 법니다. 그곳에 돈을 넣으려면 투자자는 먼저 그 나라의 통화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한 통화는 그 나라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 금리가 내리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수준 그 자체가 아니라 두 나라 금리의 **차이**, 흔히 금리 차(rate differential)라고 부르는 것과, 시장이 그 차이가 어디로 향한다고 보는지입니다.

트레이더가 중앙은행을 그렇게 면밀히 지켜보는 이유,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가 일주일치 경제 지표보다 통화를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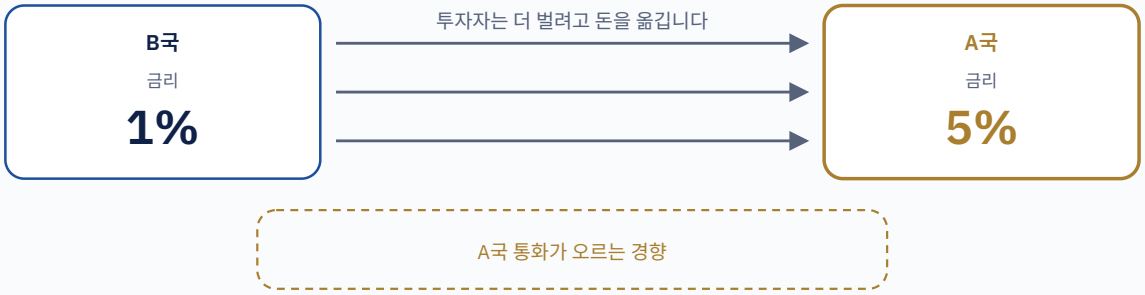


그림 3. 투자자는 더 높은 금리를 향해 돈을 옮기며, 그러려면 현지 통화가 필요합니다. 표시된 금리는 예시입니다.

인플레이션,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통화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통화에 비해 가치를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반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트레이더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그 통화는 **오를**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흔히 놀라는 부분입니다.

성장과 고용은 더 단순하게 작용합니다. 고용이 늘며 성장하는 경제는 투자를 끌어들이고, 더 높은 금리를 뒷받침하며, 보통 통화를 떠받칩니다. 약해지는 경제는 반대입니다. 트레이더가 가장 많이 지켜보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GDP**(국내총생산): 경제 전체의 생산량입니다.
- **고용 보고서**: 흔히 비농업 고용(NFP, non-farm payrolls)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것입니다.
- **물가 지표**: 소비자물가지수(CPI) 같은 것입니다.
- **기업 설문 조사**: 경기 활동을 일찍 보여 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 같은 것입니다.

이 수치들이 언제 발표되는지, 경제 캘린더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9강에서 다룹니다.

중요한 것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요 지표가 발표되기 전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측치**를 내놓고, 시장은 미리 그것을 바탕으로 거래합니다. 숫자가 나올 즈음이면 예상된 결과는 보통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이를 **선반영**(priced in)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숫자가 좋은지 나쁜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좋은지 나쁜지**에 반응합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일자리 18만 개 증가를 예상했는데 보고서가 25만 개를 보여 주면 달러가 뛸 수 있습니다. 정확히

18만 개라면 반응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18만 개 증가 자체는 좋은 소식인데도 그렇습니다. 10만 개라면 달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주 듣게 될 격언 하나도 설명됩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buy the rumor, sell the fact)입니다. 트레이더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동안 통화가 몇 주 동안 오르다가, 그 소식이 확인되는 날 내릴 수 있습니다. 더 살 사람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 4. 시장은 숫자가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예측치와 비교해 어떻게 나왔는지에 반응합니다. 숫자는 예시입니다.

무역, 원자재, 투자 심리

한 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 때마다 수출업체는 외화를 받고, 결국 그 상당 부분을 자국 통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수입보다 수출이 훨씬 많은 나라에는 자국 통화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원자재 수출국에서는 이 연결이 특히 잘 보입니다. 캐나다 달러는 흔히 유가와 함께 움직이고, 호주 달러는 금속 가격과 중국의 수요와 함께 움직입니다(2강).

그리고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있습니다.

- **리스크 온**(risk-on) 분위기에서는 투자자가 자신감을 느낍니다. 주식 시장이 오르고, 돈이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캐나다 달러처럼 수익률이 높고 원자재와 연결된 통화로 흘러갑니다.
- **리스크 오프**(risk-off) 분위기에서는 투자자가 두려워합니다. 주식이 내리고, 돈이 안전 자산으로 옮겨 갑니다. 미국 달러, 일본 엔, 스위스 프랑, 금입니다.

투자 심리는 몇 시간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파산, 전쟁, 주가 급락 뒤에 그렇고, 한동안 다른 모든 동인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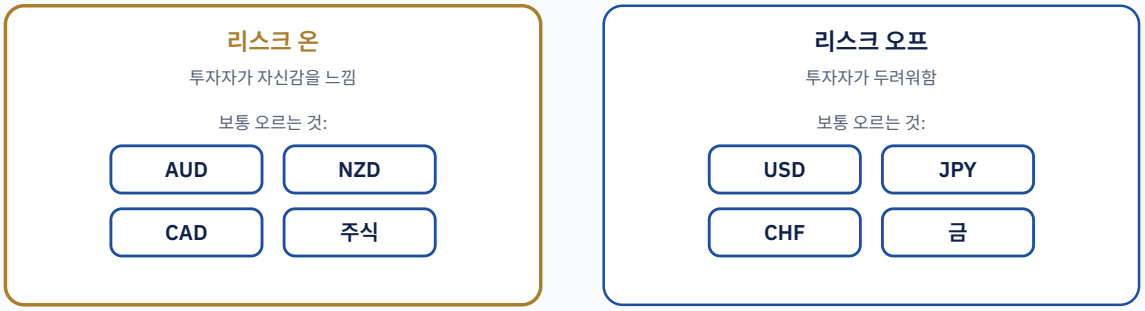


그림 5. 투자 심리. 자신감은 원자재 통화와 주식을 끌어올리고, 두려움은 안전 자산을 끌어올립니다.

정치와 충격

선거, 국민투표, 정부 예산, 무역 분쟁, 분쟁과 전쟁은 모두 투자자가 한 나라를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움직임은 결과가 **예상 밖**일 때 나오며, 이유는 경제 지표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들어와 자국 통화를 사거나 팔아 움직임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개입**(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과 10월, 일본은 엔이 달러에 대해 30여 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엔을 사는 데 약 9조 2,000억 엔을 썼습니다. 개입은 8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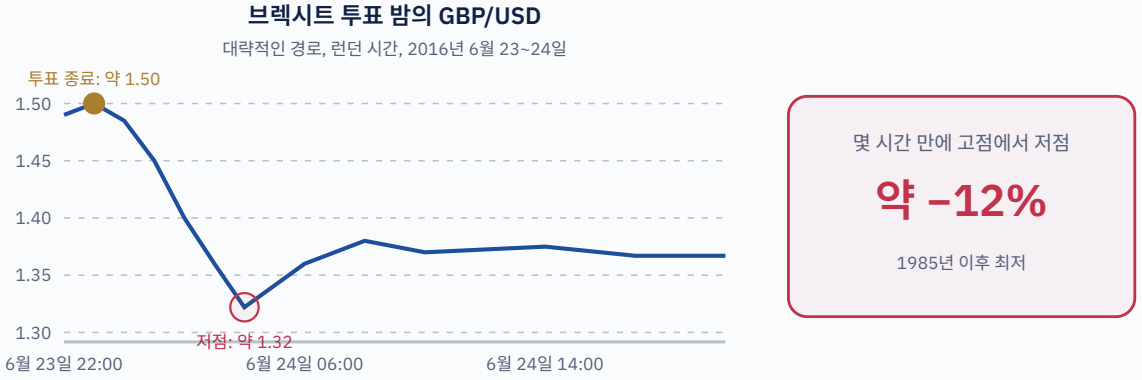


그림 6. 정치적 서프라이즈. 브렉시트 투표 뒤 GBP/USD는 몇 시간 만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 12% 떨어졌습니다. 경로는 대략적인 것입니다.

예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던 밤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투표로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잔류 결과를 예상했고, 투표가 끝날 무렵 GBP/USD는 1.50 근처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밤사이 탈퇴 쪽으로 기우는 개표 결과가 나오자 파운드는 약 1.32까지 폭락했습니다.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몇 시간 만에 약 12% 떨어진 것입니다. 다음 날 장 마감 때에도 여전히 약 8% 낮았으며, 파운드 역사상 가장 큰 하루 낙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큰 포지션을 들고 손절 주문이 없던 트레이더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기간마다 다른 동인

모든 동인이 모든 기간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이 보통 얼마나 오래가는지로 나눠 보면 정리하기 좋습니다.

- **몇 분에서 몇 시간:** 지표 서프라이즈, 중앙은행 발언, 속보, 그리고 런던 픽스(6강) 같은 때의 대량 주문입니다.
- **몇 주에서 몇 달:** 금리 전망, 중앙은행 회의, 투자 심리의 변화입니다.
- **몇 년:** 나라 사이의 성장, 인플레이션, 생산성, 무역의 차이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첫 번째 그룹에 가장 관심을 두지만, 큰 그림도 늘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단기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터지는 경향이 있는지는 장기 추세가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기 트레이더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에 집중하고, 하루하루의 잡음은 말 그대로 잡음으로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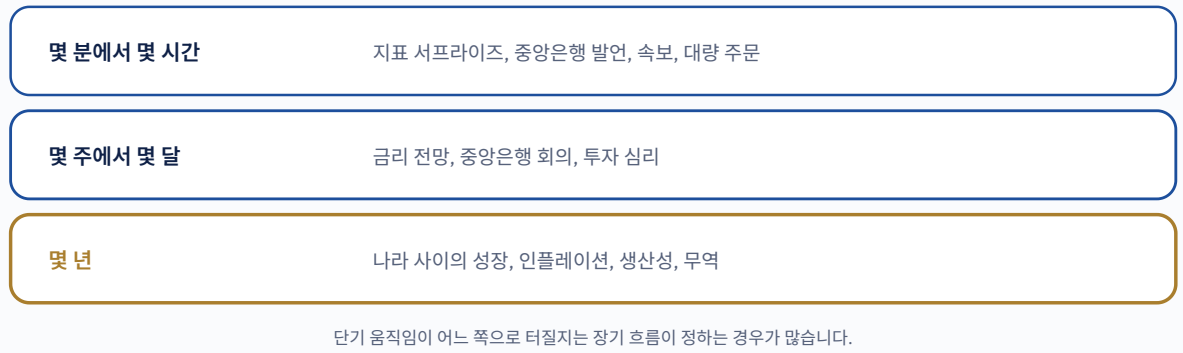


그림 7. 기간마다 작용하는 동인이 다릅니다.

트레이더에게 왜 중요한가

- **숫자보다 예측치를 먼저 압니다.**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발표마다 예상 결과를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반응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서프라이즈에 달려 있습니다.
- **금리 전망을 따라갑니다.** 시장이 중앙은행에 기대하는 바가 바뀌면 주요 통화쌍에서 가장 크고 오래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 **투자 심리를 지켜봅니다.** 불안한 날에는 엔, 스위스 프랑, 달러, 금 같은 안전 자산이 함께 오르고 원자재 통화는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정된 정치 일정은 신중하게 대합니다.** 선거와 국민투표 전에는 포지션을 줄이거나 아예 두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는 어떤 손절 주문도 막아 주지 못할 만큼 가격을 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금리 차(rate differential)	두 나라 금리의 차이로, 두 나라 사이 환율의 핵심 동인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으로, 돈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것을 줄입니다.
GDP	국내총생산. 한 경제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입니다.
비농업 고용(NFP)	농업을 제외한 미국 일자리의 월간 변화로, 가장 주목받는 경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CPI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을 재는 가장 일반적인 척도입니다.
선반영(priced in)	트레이더가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리스크 온(risk-on)	투자자가 자신감을 느끼고 더 위험한 자산을 사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리스크 오프(risk-off)	투자자가 두려워하며 돈을 안전 자산으로 옮기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안전 자산	엔, 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 금처럼 투자자가 불안할 때 사는 자산입니다.
개입(intervention)	정부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의 가치에 영향을 주려고 시장에서 직접 사거나 파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1. 환율은 각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며, 수요와 공급은 수익, 무역, 안전, 기대에 달려 있습니다.
2. 금리, 특히 두 나라 금리의 차이가 주요 통화쌍의 가장 중요한 동인입니다.
3. 시장은 서프라이즈에 반응합니다. 예상된 결과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지표가 예측치와 비교해 어떻게 나왔는지입니다.
4. 리스크 온 분위기에서는 원자재 통화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서는 달러, 엔, 스위스 프랑, 금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정치적 충격과 개입은 갑작스럽고 매우 큰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중요한 동인이 다릅니다.

실력 점검

각 문제에 답을 하나씩 표시하세요. 해설이 포함된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markettalks.info에서 온라인으로 퀴즈를 풀고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달러로 유로를 사려는 트레이더가 팔려는 트레이더보다 많습니다. EUR/USD는 어떻게 되나요?

- A 내린다
- B 오른다
- C 그대로다
- D 거래가 멈춘다

2. A국은 금리를 올리고 B국은 낮은 금리를 유지합니다. A국 통화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 A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 B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 C 금리는 통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D 법으로 고정되어 있다

3.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흔한 단기 반응은 무엇인가요?

- A 물가가 오르고 있으므로 달러가 내린다
- B 트레이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므로 달러가 오른다
- C 인플레이션은 여러 해에 걸쳐서만 중요하므로 아무 일도 없다
- D 모든 통화가 똑같이 내린다

4.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일자리 18만 개 증가를 예상했고, 보고서는 정확히 18만 개를 보여 줍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반응은 무엇인가요?

- A 달러의 큰 상승
- B 달러의 큰 하락
- C 결과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 반응이 적다
- D 그날 시장이 닫힌다

5.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무엇을 뜻하나요?

A 금요일에만 산다
B 좋은 소식이 기대되는 동안 통화가 오르다가 확인되면 내린다
C 어떤 뉴스든 나오기 전에 통화를 판다
D 뉴스를 완전히 무시한다

6.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서는 보통 어떤 통화가 오르나요?

A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
B 미국 달러, 일본 엔, 스위스 프랑
C 산유국 통화만
D 신흥국 통화

7. 유가가 급등합니다. 가장 자주 도움을 받는 통화는 무엇인가요?

A 일본 엔
B 캐나다 달러
C 스위스 프랑
D 유로

8.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뒤, GBP/USD는 몇 시간 만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얼마나 떨어졌나요?

A 약 1%
B 약 3%
C 약 12%
D 약 40%

정답 및 해설

1 B

오른다

유로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달러로 잰 유로의 가격이 오르므로 EUR/USD가 오릅니다.

2 B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금리가 높으면 더 나은 수익을 찾는 투자자가 몰립니다. 그곳에 투자하려면 A국 통화가 필요하므로 그 통화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3 B

트레이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므로 달러가 오른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트레이더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통화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4 C

결과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 반응이 적다

예상된 결과는 보통 발표 전에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은 서프라이즈에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5 B

좋은 소식이 기대되는 동안 통화가 오르다가 확인되면 내린다

트레이더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동안 삽니다. 소식이 확인되면 남은 매수자가 적고 일부는 이익을 실현하므로 가격이 내릴 수 있습니다.

6 B

미국 달러, 일본 엔, 스위스 프랑

투자자가 두려워하면 달러, 엔, 스위스 프랑,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돈을 옮깁니다.

7 B

캐나다 달러

캐나다는 큰 석유 수출국이어서 유가가 오르면 더 많은 외화가 들어오고, 이는 캐나다 달러를 떠받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C

약 12%

잔류를 예상하던 시장에 결과가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파운드는 1.50 근처에서 약 1.32까지, 약 12% 떨어졌습니다.

출처

- CNN Money, 브렉시트 투표 뒤 영국 파운드 31년 만의 최저로 폭락(2016년 6월 24일): https://money.cnn.com/2016/06/24/investing/pound-crash-eu-referendum/
- Nippon.com, 2022년 일본의 엔 매수 개입: https://www.nippon.com/en/japan-data/h01492/
-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 상황 보고서(The Employment Situation):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it.toc.htm
- BIS, 2025년 4월 장외 외환 거래량(3년 주기 중앙은행 조사): https://www.bis.org/statistics/rpfx25_fx.htm

Market Talks

계속 학습하기

다음: 8강
중앙은행과 금리

이 강의는 MARKET TALKS 교육 센터의 외환 과정에 속합니다. 초급 강의는 무료이며 강의마다 퀴즈와 다운로드 가능한 PDF가 제공됩니다. 중급과 고급 강의는 회원 전용입니다.

교육 센터
기초 원리부터 고급 주제까지 다루는 강의

시장 분석
주요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리포트
비트코인, 금, 은, SPX 등

markettalks.info

텔레그램 @MARKET_TALKS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 2026 MARKET TALKS. 이 PDF는 수정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